

[국산T]

**2017 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미수록 부분 & 유사작품
[Part3]**

Orbi Class

[광릉한샘기숙학원]

수능특강 73P '연행가(燕行歌)' 미수록 부분

집집이 호인들은 길의 나와 구경하니, 사신 일행에 대한 호기심.

집집마다 만주 사람들은 길에 나와 구경하니,

의복기 괴려하여 처음 보기 놀랍도다. 옷차림에 대한 놀람.

옷차림이 괴이하여 처음 보기에 놀랍도다.

머리는 압흘 싹가 뒤만 셋혀 느리쳐서 변발.

머리는 앞을 깎아 뒤만 땅아 늘어뜨려

당스실노 당기히고 말익이을 놀너 쓰며,

당사실로 땡기를 드리고 마래기라는 모자를 놀러 쓰며.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양치 한 번 아니하여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양치질 한 번도 아니하여

이 썩은 황금이오 손톱은 다섯 치라. 문화적 편견, 우리 문화에 대한 우월감.

호인에 대한 멸시, 조롱. 대구, 은유, 과장, 반어법.

이빨은 황금빛이요, 손톱은 다섯 치나 된다.

⇒ 청나라 거리와 사신단을 구경하는 호인들의 모습

[거문빛 저구리는 깃 업시 지어쓰되, 옷깃.

검은빛의 저고리는 깃이 없이 지었으되,

옷고름은 아니 달고 단초 다라 입어쓰며,

옷고름은 아니 달고 단추 달아 입었으며,

아청 바지 반물 속것 허리씩로 놀너 미고,

검푸른 바지와 짙은 남빛 속옷 허리띠로 놀러 매고

두 다리의 횡전 모양 타오구라 일흠 하여,

두 다리에 행전 모양으로 맨 것을 타오구라 이름하여

회목의셔 오금싸지 회미하게 드리 씨고

발목에서 오금까지 가뜩하게 들이끼우고

깃 업슨 청두루막기 단초가 여러히요,

깃 없는 푸른 두루마기 단추가 여럿이요,

좁은 스미 손등 덮허 손이 겨오 드나들고,

좁은 소매가 손등을 덮어 손이 겨우 드나 들고

두루막 위에 배자이며 무릎 우에 슬갑이라.] [] : 객관적 묘사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추위를 막기 위해 바지 위에 입던 옷.

두루마기 위에 덧저고리 입고 무릎 위에는 슬갑이라.

⇒ 호인들의 의복 제도

(중략)

발 밭시를 불작시면 수당혀를 신어시며,

발 맵시를 볼 것 같으면 수를 놓은 당혜를 신었으며,

청여는 발이 커서 남자의 발 굵트나,

청나라 여자는 발이 커서 남자의 발같이 생겼으나,

당여는 발이 작아 두 치짐 되는 거술 대구, 과장

한족의 여자는 발이 작아 두 치(약 6센티미터)쯤 되는 것을

비단으로 꼭 동히고 신 뒤축의 굽을 달아, 전족 풍습.

비단으로 꼭 동이고 신뒤축에 굽을 달아

위뚱뚱 가는 모양 너머질가 워터하다.

뚱뚱뚱뚱 가는 모양이 넘어질까 워태롭다.

그러타고 웃지 마라. 명나라 씨친 제도

그렇다고 웃지 마라. 명나라가 남긴 제도

저 계집의 발 한 가지 지금까지 볼 것 있다. 친명반청의 사고, 당시 사대부들의 인식 반영.

저 계집의 발 한 가지가 지금까지 볼 것 있다.

⇒ 중국 여인네의 모습

(중략)

하쳐라고 촛조가니 집 제도가 우습도다

유숙하는 곳이라 하여 찾아가니, 집의 구조가 우습도다.

오량각 이 간통에 벽돌을 곱게 깔고

들보가 다섯이나 되는 큰 집의 가운데 통로에 벽돌을 곱게 깔고

반간식 칸을 지어 좌우로 뒤칸하니.

반 칸씩 칸(화덕)을 지어 좌우로 마주보게 하였다.

칸 모양이 엇더터냐 칸 제도를 못 보거든

중국식 온돌인 칸의 모양은 어떠한가? 칸의 모양을 못 본 사람을 위해 말해본다면

우리 나라 붓두막이 그와 거의 흡스하여 '캉'을 알기 쉽게 비교하여 설명.

우리나라의 부뚜막이 중국의 캉과 비슷하다.

그 밋히 구들 노코 불을 씨게 마련하고,

그 밑에 방구들을 놓고 불을 때게 만들어 놓고

그 우히 즈리 펴고 밤이면 누어 즈며

그 위에다 자리를 깔고 밤이면 누워서 잠을 자며

낮이면 손임 접디 걸터앉기 가장 죠코, 안성맞춤

낮에는 여기에서 손님 대접을 하고, 또 걸터앉기에 가장 좋다.

치유흔 완즈창과 면회흔 벽돌담은

기름칠을 한 완자창과 회를 바른 벽돌담은

미천흔 호인들도 집치레 과람코나.

미천한 중국인들 치고는 집 치장이 지나치구나.

⇒ 중국의 집 구조

수능특강 80P '농가월령가' 미수록 부분 (정월령)

정월(正月)은 맹춘(孟春)이라 입춘(立春) 우수(雨水) 절후(節候)로다.

1월은 초봄이라 입춘, 우수의 절기로다.

산중 간학(山中澗壑) 빙설(冰雪)은 남아시나

산 속 골짜기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 있으나,

평교(平郊) 광야(廣野)의 운물(雲物)이 변(變)하도다.

넓은 들과 벌판에는 경치가 변하기 시작하도다.

⇒ **정월의 절기 소개**

어와 우리 성상(聖上) 애민중농(愛民中農) 하오시니

어와, 우리 임금님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히 여기시어,

간측(懇側)하신 권농륜음(勸農淪音) 방곡(坊曲)에 반포(頒布)하니

농사를 권장하시는 말씀을 방방곡곡에 알리시니,

슬프다 농부(農夫)들이 아무리 무지(無知)하들

슬프다 농부들이여. 아무리 무지하다고 한들

네 몸 이해(利害) 고사(姑捨)하고 성의(聖意)를 어길소냐

네 자신의 이해 관계를 제쳐놓고라도 임금님의 뜻을 어기겠느냐?

산전 수답(山田 水畝) 상반(相半)하고 힘더로 하오리라.

밭과 논을 반반씩 균형 있게 힘대로 하오리라.

일년 풍흉(豊凶)은 측량(測量)치 못하야도

일 년의 풍년과 흉년을 예측하지는 못한다 해도

인력(人力)이 극진(極盡)하면 천재(天災)를 면(免)하느니

사람의 힘을 다 쏟으면 자연의 재앙을 면하냐니,

제 각각(各各) 권면(勸勉)하야 게을리 구지 마라. 명령형 어미 사용. 설득과 교훈의 의도.

제 각각 서로 권면하여 게을리 굴지 마라.

⇒ **농사일에 힘쓰도록 권면함**

일년지계 재춘(一年之計 在春)하니 범사(凡事)를 미리 하라.

일 년의 계획은 봄에 하는 것이니 모든 일을 미리 하라.

봄에 만일 실시(失時)하면 종년(終年) 이리 낭패되네.

만약 봄에 때를 놓치면 해를 마칠 때까지 일이 낭패되네.

농지(農地)를 다스리고 농우(農牛)를 살피 먹여,

농지를 다스리고 농우를 잘 보살피서.

지거름 지와 노코 일변(一邊)으로 시러 닦여,

재거름을 재워 놓고 한편으로 실어 내어,

맥전(麥田)에 오좁두기 세전(歲前)보다 힘써 하소.

보리밭에 오좁 주기를 세전보다 힘써 하소.

늪으니 근력(勤力) 업고 힘든 일은 못 하야도,

늪으니 기운이 없어 힘든 일은 못 하여도,

낮이면 이영 녀고 밤의는 식기 쏘아

낮이면 이영을 엮고 밤이면 새끼 꼬아,

씨 맞춰 집 니우니 큰 근심 더럿도다.

때맞추어 지붕을 이니 큰 근심을 덜었도다.

실과(實果) 나모 벗꽃 싸고 가지 슷이 돌 씨우기,

과일 나무 보굿을 벗겨 내고 가지 사이에 돌 끼우기,

정조(正朝)날 미명시(未明時)의 시험(試驗)조로 하야 보소. 청유형, 실천 촉구.

정월 초하룻날 날이 밝기 전에 시험삼아 하여 보소.

며나리 닛디 말고 송국주(松菊酒) 밋혀라.

며느리는 잊지 말고 송국주를 빚어라.

삼춘 백화시(三春百花時)의 화전 일취(花前一醉)하야 보즈.

온갖 꽃이 만발한 봄에 화전을 안주 삼아 한번 취해 보자.

⇒ 정월의 농사일

상원(上元)날 달을 보아 수한(水旱)을 안다 하니,

정월 대보름날 달을 보아 그 해의 흉수와 가뭄을 안다 하니,

노농(老農)의 징험(徵驗)이라 대강은 짐작(斟酌)하니.

농사짓는 노인의 경험이라 대강은 짐작하네.

정초(正初)에 세배(歲拜)하든 돈후(敦厚)한 풍속(風俗)이라.

정월 초하룻날 세배하는 것은 인정이 두터운 풍속이라.

시 의복(衣服) 펼쳐 입고 친척(親戚) 인인(隣人) 서로 촌조

새 옷을 펼쳐 입고 친척과 이웃을 서로 찾아,

노소(老少) 남녀(男女) 아동(兒童)까지 삼삼오오(三三五五) 단일 적의

남녀 노소 아이들까지 몇 사람씩 태를 지어 다닐 적에,

와각 버석 울긋불긋 물면(物色)이 변화(繁華)하다. 감각적.

설빔 새 옷이 와삭버석거리고 울긋불긋하여 빛깔이 화려하다.

산나히 연(鰲) 씹오고 계집아히 널 뛰고,

남자는 연을 띄우고 여자애들은 널을 뛰고,

늦노라 나기하기 소년(少年)들의 노리рода.

웃을 놀아 내기하기 소년들의 놀이로다.

사당(祠堂)에 세알(歲謁)하니 병탕(餅湯)의 주과(酒果)로다.

설날 사당에 인사를 드리니 떡국과 술과 과일이 재물이로다.

엄파와 미나리를 무어엄의 껌드리면,

움파와 미나리를 무 싹에다 곁들이면

보기의 신신(新新)하야 오신채(五辛菜) 불워하라

보기에 새롭고 싱싱하니 오신채를 부러워하겠는가?

보름날 약식(藥食) 다례(茶禮) 신라(新羅)적 풍속(風俗)이라.

보름날 약밥을 지어 먹고 차례를 지내는 것은 신라 때의 풍속이라.

묵은 산채(山菜) 살마니여 육미(肉味)를 밧골소나.

지난 해에 캐어 말린 산나물을 삶아서 무쳐 내니 고기맛과 바꾸겠는가?

귀 밝히는 약(藥)술이며 부름 속는 생울(生粟)이라.

귀 밝으라고 마시는 약술이며, 부스럼 삭으라고 먹는 생밤이라.

먼저 불너 더위팔기 달마지 해불 혀기,

먼저 불려서 더위 팔기와 달맞이 햇불 켜기는,

흘너오는 풍속(風俗)이오 아히들 노리로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풍속이요 아이들 놀이로다.

⇒ 설날과 정월 대보름의 풍속

반드시 읽어보자! 정철 '관동별곡'

1. 관찰사로 부임함(창평 - 한양 - 섬강,치악(원주))

江江湖호애 病병이 깊퍼 竹죽林林的 누엇더니,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泉石膏)이 되어, 은서지인 창평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關關東동八팔百백리니에 方方面면을 맞디시니,

((임금님께서) 8백 리나 되는 강원도 관찰사의 직분을 맡겨 주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아아, 임금님의 은혜야말로 갈수록 그지없다)

延연秋추門문 드리드라 慶경會회 南남門문 바라보며,

(경복궁 서문인 연추문으로 달려 들어가 경회루 남쪽 문을 바라보며)

下하直직고 물너나니 玉옥節절이 알피 섰다.

(임금님께 하직을 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서 있다.)

平평丘丘驛驛 역 물을 7라 黑흑水슈로 도라드니,

(평구역[양주]에서 말을 갈아 타고 흑수[여주]로 돌아드니)

蟾섬江강은 어디메오, 稚티岳악이 여기로다.

(섬강[원주]는 어디인가? 치악산[원주]이 여기로구나)

2. 도내 각 고을 순회(소양강(춘천) - 동주(철원) - 회양)와 관찰사로서의 포부

昭쇼陽양江강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소양강의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든다는 말인가(임금 계신 한강으로 흘러들겠지?)

孤고臣신 去거國국에 白백髮발도 하도 할샤.

(임금 곁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가 서울을 떠나매 (우국지정으로)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東동州州 晝 夜 새와 北북寬寬 觀觀亭亭의 올라하니,

(동주[철원]의 밤을 겨우 새워(날이 새자마자) 북관정에 오르니,)

三삼角각山山 第데一일峰봉이 ㅎ마면 되리로다.

(임금 계신 서울의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일 것도 같구나)

弓궁王왕 大대闕闊 터희 烏오鵲작이 지지괴니,

(옛날 태봉국 궁예왕의 대궐 터였던 곳에 까막까치가 지지귀니,)

千천古古 興흥亡망을 아난다, 물으는다.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함을 알고 우는가, 모르고 우는가.)

淮회陽양 네 일흠이 마초아 7틀시고.

(이 곳이 옛날 한(漢)나라에 있던 '회양'이라는 이름과 공교롭게도 같구나.)

汲급長당孺유 風풍彩치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중국의 회양 태수(太守)로 선정을 베풀었다는 급장유의 풍채를 이 곳 회양에서 다시 볼 것이 아닌가?)(선정 포부를 밝힘)

3. 만폭동 폭포의 장관

營營中등이 無무事스하고 時時節절이 三三月월인 제,

(감영 안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 때,)

花화川천 시내길히 楓풍岳악으로 버더 있다.

(화천(花川)의 시내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

行행裝장을 다 썰티고 石石徑徑의 막대 디퍼,

(행장을 간편히 하고, 돌길에 지팡이를 짚고,)

百百川천洞동 겨티 두고 萬萬瀑폭洞동 드러가니,

(백천동을 지나서 만폭동 계곡으로 들어가니,)

銀은 7톤 무지개, 玉玉 7톤 龍龍의 소리,

(은같은 무지개 옥같이 희고, 고운 용의 꼬리 같은 폭포가)

섯돌며 썸는 소리 十十里리의 주자시니,

(섞여 돌며 내뿜는 소리가 십리 밖까지 퍼졌으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멀리서 들을 때에는 우렛소리(천둥소리) 같더니, 가까이서 보니 눈이 날리는 것 같구나!)

4. 금강대에서의 신선적 풍모

金金剛강臺臺 밧 仙仙鶴鶴학이 샷기 치니,

(금강대 맨 꼭대기에 학이 새끼를 치니)

春春風風 玉玉笛笛聲聲의 첫음을 썸듯던디,

(봄바람에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에 선잠을 깨었던지,)

縞縞衣衣의 玄玄裳裳이 半半空空의 소소 쓰니,

(흰 저고리 검은 치마로 단장한 학이 공중에 솟아 쓰니,)

西西湖湖호 넷 主主人人을 반겨셔 넘노는 듯

(서호의 옛 주인 임포를 반기듯 나를 반겨 넘나들며 노는 듯하구나!)

5. 진혈대에서의 조망

小小香香爐爐 大大香香爐爐 눈 아래 구버보고,

(소향로봉과 대향로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正正陽陽寺寺 스 眞眞歇歇臺臺 高高터 올라 안즌마리,

(정양사 진혈대에 다시 올라왔으니,)

廬廬 巖巖山山 眞眞面面目목이 여기야 다 보는다.

(여산 같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서야 다 보인다)

어와, 造造化化翁翁이 현스토 현스할샤.

(아아,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날거든 뛰디 마나, 섰거든 솟디 마나.

(저 수많은 봉우리들은 나는 듯 하면서도 뛰는 듯도 하고, 우뚝 섰으면서도 솟은 듯하니, 참으로 장관이로다.)

芙蓉蓉용을 고장는 듯, 白백玉옥을 못것는 듯,

(연꽃을 꽃아 놓은 듯, 백옥을 묶어 놓은 듯.)

東동溟명을 박차는 듯, 北북極극을 괴왓는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을 괴어 놓은 듯하구나)

높히려고 望망高고臺臺디, 외로울샤 穴혈望망峰봉이

(높기도 하구나 망고대여, 외롭기도 하구나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아뢰려고)

千천萬만劫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른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그 지조가 놀랍구나.))

어와 너여이고, 너 ㄱㄷ니 또 잇는가

(아, 너(망고대, 혈망봉)로구나. 너같은 높은 기상을 지닌(지조가 높은) 것이 또 있겠는가?)

6. 개심대에서의 조망

開開心심臺臺디 고터 올라 衆衆香향城성 바라보며,

(개심대에 다시 올라 중향성을 바라보며)

萬萬二이千천峰봉을 歷歷歷歷히 혀여히니

(만 이천 봉을 똑똑히 헤아려 보니.)

峰봉마다 밋쳐 잇고 굻마다 서린 기운,

(봉마다 밋혀 잇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조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 것이지, 맑고 깨끗한 저 산봉우리의 빼어난 이여!)

더 기운 흐터 내야 人인傑걸을 문들고자.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흠어 내어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形形容용도 그지업고 體體勢세도 하도 할샤.

(생긴 모양도 각양각색 다양도 하구나.)

天塲地디 삼기실 제 自自然연이 되연마는,

(천지가 생겨날 때에(만 이천 봉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제 와 보게 되니 有有情정도 有有情정홀샤.

(이제 와서 보니 모두가 뜻이 있게 만들어진 듯하여 정답기도 정답구나!)

7. 비로봉을 바라보며 공자의 덕 흠모

毗盧로峰봉 上上上頭두의 올라 보니 그 뉘신고.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에 올라 본 사람이 누구이신가?)

東동山山 泰태山산이 어늬야 높듯던고.

(동산과 태산의 어느 것이 비로봉보다 높던가?)

魯魯國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天천下下하 엇씨하야 적답말고.

(하물며 넓거나 넓은 천하를 공자는 어찌하여 작다고 했는가?)

어와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아! 공자와 같은 그 높고 넓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겠는가?(공자의 호연지기를 도저히 따를 수 없네.))

오르디 못하거니 내려가미 고이힐가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감이 무엇이 괴이할까?)

8. 화룡소를 보며 선정에의 포부를 다짐

圓圓通通골 7는 길 獅獅子峰봉을 츠자가니,

(원통골의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알픽 너러바회 化化龍龍소 되여세라.

(그 앞의 넓은 바위가 화룡소(化龍沼)가 되었구나.)

千千年年 老老龍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마치 천 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것같이)

晝晝夜야의 흘녀 내여 滄창海海에 니어시니,

(밤낮으로 물을 흘러 내어 넓은 바다에 이었으니,)

風風雲운을 언제 어더 三삼日日雨우를 디련는다.

((저 용은)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흡족한 비를 내리려느냐?)

陰陰崖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그늘진 낭떠러지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려무나.(선정의 포부가 나타나 있다.))

9. 십이폭포의 장관

磨마訶하衍연 妙묘吉길祥상 雁안門문재 너머 디여,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내려가)

외나모 빠른 ㄷ리 佛불頂頂臺臺디 올라하니,

(씩은 외나무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오르니)

千천尋심絶絶壁벽을 半반空공에 세여 두고,

((조물주가) 천 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 두고,)

銀은河河水水슈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은하수 큰 굽이를 마디마디 잘라내어)

실기티 플터이셔 뵈기티 거러시니,

(실처럼 풀어서 배처럼 걸어 놓았으니)

圖도經경 열 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산수도경에는 열 두 굽이라 하였으나,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되어 보인다.)

李니謫덕仙선 이제 이셔 고터 의논하게 되면,

(만일, 이백이 지금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廬녀山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하려니.

(여산 폭포가 여기보다 낫다는 말은 못 할 것이다.)

10. 동해로 가는 감회

山山中등을 미양 보라, 東동海히로 가자스라.

(내금강 산중의 경치만 매양 보겠는가? 이제는 동해로 가자꾸나.)

籃남輿여緩완步보하야 山山映영樓樓누의 올라하니,

(남여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에 오르니,)

玲녕瓏능碧벽溪계와 數수聲성啼啼鳥鳥는 離니別별을 怨원하는 듯,

(눈부시게 반짝이는 시냇물과 여러 소리로 우짖는 산새는 나와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고 (감정이입),)

旌정旗기를 썰티니 五오色색이 넘노는 듯,

(깃발을 휘날리며 오색 기폭이 넘나드는 듯하며,)

鼓고角각을 섯부니 海히雲운이 다 것은 듯

(북과 나팔을 섞어 부니(풍악을 울리니) 바닷구름이 다 걷히는 듯하다.)

鳴명沙사길 니근 물이 醉취仙선을 빗기 시러,

(모랫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작자)을 비스듬히 태우고)

바다를 것터 두고 海히棠당花화로 드러가니,

(해변의 해당화 핀 꽃밭으로 들어가니,)

白백鷗구야 누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논.

(백구야 날지 마라, 내가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11. 총석정의 장관

金金闌난窟굴 도라드러 叢총石석후명 올라하니,

(금란굴 돌아들어 총석정에 올라가니)

白帛玉옥樓누 남은 기둥 다만 네히 서 잇고야.

(옥황 상제가 거쳐하던 백옥루의 기둥이 네 개만 서 있는 듯하구나.)

工公僮슈의 성녕인가, 鬼귀斧부로 다드문가

(옛날 중국의 명장(名匠)인 공수(工僮)가 만든 작품인가? 조화를 부리는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태야 六육面면은 므어슬 象상툃던고.

(구태어, 육면으로 된 돌기둥은 무엇을 본 뒀는가?)

12. 삼일포에서의 사선 추모

高고城성을란 더만 두고 三삼日일浦포를 츠자가니,

(고성을 저 만큼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丹단書서는 宛宛然然연히되 四스仙선은 어디 가니.

(그 남쪽 봉우리 벼랑에 '영랑도 남석행'이라고 쓴 붉은 글씨가 뚜렷이 남아 있으나, 이 글을 쓴 사선은 어디 갔는가?)

예 사흘 머은 後후의 어디 가 또 머물고.

(여기서 사흘 동안 머무른 뒤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던고?)

仙선遊유潭담 永영郎랑湖호 거기나 가 잇는가.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는가?)

淸淸澗간후명 萬만景경臺대 몇 고디 안뒀던고,

(청간정, 만경대를 비롯하여 몇 군데서 앉아 놀았던가?)

13. 의상대에서 본 일출의 광경

梨니花화는 벌써 디고 楹동새 슬피 울 제,

(배꽃은 벌써 지고 소쩍새 슬피 울 때,)

洛낙山山東동畔반으로 義의相상臺대에 올라 안자,

(낙산사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日日出출을 보리라 밤등만 니러하니,

(해돋이를 보려고 한밤중쯤 일어나니,)

祥상雲운이 집피는 동, 六육龍龍이 바퇴는 동,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여러 마리 용이 해를 떠받치는 듯,)

바다히 써날 제는 萬만國국이 일위더니,

(바닥에서 솟아오를 때에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하더니,)

天塹中庭의 티쓰니 毫호髮발을 헤리로다.

(하늘에 치솟아 뜨니 가는 터럭도 헤아릴 만큼 밝도다.)

아마도 靛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혹시나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무를까 두렵구나(이백의 시구 인용).)

詩시仙선은 어디 가고 咳히唾타만 나맛느니.

(이백은 어디 가고 (간신배가 임금의 은총을 가릴까 염려스럽다는) 시구만 남았느냐?)

天塹地地間간壯장한 惝惝 惺惺히도 惺惺하고.

(천지간 굉장한 소식이 자세히도 표현되었구나.)

14. 경포의 장관과 강릉의 미풍 양속

斜사陽양 峴현山산의 磔특을 攄니볼와

(저녁 햇빛이 비껴드는 현산의 철쭉꽃을 이어 밝아.)

羽우蓋개芝지輪륜이 鏡경浦포로 攄려가니,

(우개지륜을 타고 경포로 내려가니.)

十십리리 氷빙紈환을 다니고 高터 迢迢,

(십 리나 뻗쳐 있는 얼음같이 흰 비단을 다니고 다시 다린 것 같은.)

長당松송 울흔 小개 슬꺾장 攄려시니,

(맑고 잔잔한 호숫물이 큰 소나무 숲으로 둘러싼 속에 한껏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攄도 攄도 攄도 攄도 攄도 헤리로다.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여 물 속 모래알까지도 헤아릴 만하구나.)

孤고舟舟解解纜纜하야 亭亭子子 攄히 攄히 올나가니,

(한 척의 배를 띄워 호수를 건너 정자 위에 올라가니.)

江강門문橋교 너른 郊郊 大대洋양이 攄기로다

(강문교 너른 곁에 동해가 거기로구나.)

從從容容攄다 이 氣氣攄攄攄, 闊闊攄攄攄다 더 境境界界,

(조용하구나 경포의 기상이여, 넓고 아득하구나 저 동해의 경계여.)

이도곤 攄곤 더 攄 어디 攄잇 말고.

(이 곳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 잇단 말인가?)

紅紅粧粧 古古事事 攄히 攄히 攄히 헤리로다.

(과연 고려 우왕 때 박신과 홍장의 사랑이 호사스런 풍류이기도 하구나)

江江陵陵 攄 大대都都護護 攄攄攄 攄攄攄 攄攄攄,

(강릉 대도호부의 풍속이 좋기도 하구나.)

節節孝孝 攄攄攄攄 攄攄攄攄 攄攄攄攄 攄攄攄攄

(충신, 효자, 열녀를 표창하기 위하여 세운 정문이 동네마다 널렸으니)

比比屋屋 攄攄攄攄 攄攄攄攄 攄攄攄攄 攄攄攄攄

(즐비하게 늘어선 집마다 모두 벼슬을 줄 만하다는 요순 시절의 태평 성대가 이제도 있다고 하겠도다.)

15. 죽서루(삼척)에서의 객수

眞眞珠珠館館 竹죽西서樓루 五오十십川천 々린 물이

(진주관[삼척] 죽서루 아래 오십천의 흘러내리는 물이)

太태白백山산 그림자를 東동海해로 다마 가니,

((그 물에 비친)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옮겨)가니,)

출하리 漢한江강의 木목覓觅의 다히고져.

(차라리 그 물줄기를 임금 계신 한강으로 돌려 서울의 남산에 대고 싶구나.)

王왕程程이 有有限한하고 風풍景景이 못 슬미니,

(관원의 여정은 유한하고, 풍경은 볼수록 싫증나지 않으니,)

幽유懷회도 하도 할샤, 客객愁수도 들 디 업다.

(그옥한 회포가 많기도 많고, 나그네의 시름도 달랠 길 없구나.)

仙仙槎사를 띄워 내여 斗두牛우로 向향하살가,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워 내어 북두성과 견우성으로 향할까?)

仙仙人인을 좇으려 丹단穴혈의 머므살가

(사선을 찾으려 단혈에 머무을까?)

16. 망양정(울진)에서의 파도 조망

天천根근을 못내 보와 望망洋양亭亭의 울은말이,

(하늘의 맨 끝을 끝내 못보고 망양정에 오르니,)

바다 빛근 하늘이니 하늘 빛근 므서신고.

((수평선 저 멀리)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갯둑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가뜩이나 성난 고래(파도)를 누가 놀라게 하기에)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물을 불거니 뿔거니 하면서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銀은山산을 깬거 내여 六육습합의 々리는 듯,

(은산을 꺾어 내어 온 세상에 흩뿌려 내리는 듯)

五오月월 長당天천의 白백靄靄는 므스 일고.

(오월 드높은 하늘에 백설(파도의 물거품)은 무슨 일인가?)

17. 동해의 달맞이

저근덧 밤이 드러 風풍浪浪이 定명하거늘,

(잠깐 사이에 밤이 되어 바람과 물결이 가라앉기에,)

扶부桑상咫지尺척의 明明月월을 기다리니,

(해 뜨는 곳이 가까운 동해에서 명월을 기다리니,)

瑞서光광千천丈丈 이 보이는 듯 숨노고야.

(상서로운 빛줄기가 보이는 듯하다가 숨는구나.)

珠翬簾縷를 고타 것고, 玉靑階계를 다시 쓸며,

(구슬을 꿰어 만든 발을 다시 걷어올리고 옥돌같이 고운 층계를 다시 쓸며,)

啓계明明星성 듯도록 곳초 안자 바라보니,

(셋별이 돌아 오를 때까지 곳곳이 앉아 바라보니,)

白백蓮년花화 한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흰 연꽃 같은 달덩이를 어느 누가 보내셨는가?)

일이 도흔 世세계계 늑대되 다 뵈고져.

(이렇게 좋은 세상을 다른 사람 모두에게 보이고 싶구나. 온 백성에게 은혜가 골고루 미치도록 선정을 베풀고 싶다.)

流뉴靄하酒주 7득 부어 들다려 무론 말이,

(신선주를 가득 부어 손에 들고 달에게 묻는 말이,)

英英雄웅은 어디 가며, 四스仙선은 그 뉘려니,

("옛날의 영웅은 어디 갔으며, 신라 때 사선은 누구더냐?")

아미나 만나 보아 넷 기별 못자 하니,

(아무나 만나 보아 영웅과 사선에 관한 옛 소식을 묻고자 하니,)

仙선山산 東동海회에 갈 길히 머도 멀샤.

(선산이 있다는 동해로 갈 길이 멀기도 하구나)

18. 꿈 속의 선연

松송根근을 베여 누어 풋증을 얼핏 드니,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선잠이 얼핏 들었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날드려 날온 말이,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그대를 내 모르랴, 上상界계에 眞진仙선이라.

("그대를 내가 모르랴? 그대는 하늘 나라의 참 신선이라,)

黃황庭庭經경一일字字를 엮디 그릇 닐거 두고,

(황정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고)

人人間간의 내려와서 우리를 쏘오는다.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한 잔 머겨 보오.

(잠시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 보오.)

北북斗두星성 기우려 滄창海회水水 부어 내여,

(북두 칠성과 같은 국자를 기울여 동해물 같은 술을 부어)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저 먹고 나에게도 먹이거늘, 서너 잔을 기울이니)

和화風풍이 翳습翳습하야 兩兩腋익을 추혀 드니,

(온화한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 양 겨드랑이를 추켜올리니,)

九구萬만리 長당空공에 저기면 놀리로다.

(아득한 하늘도 웬만하면 날 것 같구나.)

이 술 가져다가 四스海히에 고로 논화,

(이 신선주를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눠)

億억萬만蒼창生싱을 다 醉취케 밍근 後후의,

(온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고터 만나 또 한 잔 ㅎ짚고야.

(그 때에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

말디자 鶴학을 타고 九구空공의 올라가니,

(말이 끝나자, 신선은 학을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니)

空공中中 玉옥蕭소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공중의 옥통소 소리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어렵잖아네)

나도 잠을 썬여 바다를 구버보니,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7인들 엇디 알리.

(깊이를 모르는데 하물며 가인들 어찌 알리.)

明明月월이 千천山山萬만落낙의 아니 비친 더 업다.

(명월이 온 세상에 아니 비친 곳이 없다)